

# GIST, 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 '빛.나.다.'

## 성황리 개최

- 광주광역시·광주경제자유구역청·GIST·한국전력공사·기술보증기금·광주연구개발특구 공동주최, 27일(목) GIST에서... 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를 창업·기술이전과 연결
- 전기차 충전·태양광 발전·지역 에너지 시스템 등 기술 소개 및 사업화 기회 모색... 임기철 총장 "현장에서 활용될 때 기술의 가치 완성... 광주 에너지산업 거점 도약 기대"



▲ 11월 27일(목) GIST 오룡관에서 열린 '빛.나.다.'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 박준식 과장, 한국산업은행 강중재 센터장,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선석기 청장, GIST 임기철 총장,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이광희 원장, 기술보증기금 이장훈 본부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1월 27일(목) GIST 오룡관에서 '빛.나.다.(빛의 도시 광주에서 나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다시 세상을 비춘다)' 2025 하반기 에너지산업 기술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GIST, 한국전력공사, 기술보증기금, 광주연구개발특구가 공동 주최하고,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광주의 에너지를 품고, 다시 한 번 세상을 비추다'라는 슬로건 아래 에너지 분야 연구자들의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가 창업·기술이전으로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광주 산업 현장의 기술 수요 중심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GIST 임기철 총장, 에너지밸리기술원 이광희 원장,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선석기 청장, 기술보증기금 이장훈 본부장, 한국산업은행 강중재 센터장, 광주광역시 박준식 에너지산업과장 등 주요 내빈과 에너지 산업 관련 연구원, 기업인, 투자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 11월 27일(목), GIST 오룡관에서 '빛.나.다.' 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가 열리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정책, 투자 지원체계**가 소개됐다. 주요 발표 내용은 산업단지 기반 기업지원 정책, RE100 전환 대응 전략, 기술이전 절차 및 지식재산 관리, 기술평가·보증·사업화 자금 지원제도, 연구 개발특구의 사업화 프로그램, 기술창업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진행된 **기술이전 피칭 세션**에서는 전기차 초급속 충전 냉각기술, 인공지능 기반 태양광 발전 진단기술, 지역에너지시스템 최적 운영기술, 친환경 아연 도금기술, 에너지저장 시스템 안전·예측 기술, 온디바이스 AI 기반 시뮬레이션 플랫폼, 차세대 태양광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술이 발표되며, 산업현장과 연계되는 실질적 기술이전 기회**가 제시됐다.

행사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은 **에너지 기술의 실질적 이전과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이광희 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쉽게 찾고, 기술이전·정책·투자가 한 번에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도 이번 기술교류회를 계기로 **혁신 기술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정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이광희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선석기 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GIST 임기철 총장은 “기술은 현장에서 활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완성된다”며 “오늘 발표되는 기술들이 기업 성장과 지역 산업 혁신으로 이어져 광주가 에너지산업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GIST 임기철 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GIST는 이번 ‘빛.나.다.’ 기술교류회를 통해 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과 산업 수요가 직접 연결되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연구자·기업·지원기관·투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기술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